

정형을 비틀다, 한국 타이포그래피의 유형들



홍동원_ 글씨미디어 이사·투바이트폰트연구소 소장

일본을 통해서 말이 들어오면서 아주 재미있는 현상이 하나 있었다. 똑같은 말이 진짜와 모조를 구분하여 쓰이는 가죽이라는 영어였다. 영어로 가죽은 '레더'라고 한다. 이 말이 일본은 통해 들어오면서 '레자'가 되었고 그 의미는 비닐가죽이 되었다.

타이포그래피에 대하여 글을 써달라는 말을 들었을 때 이런 일본말들이 생각난 이유가 뭘까. 혹시 타이포그래피에 대하여 오해가 있지는 않은가 하는 기우에서이다. 레터링과 타이포그래피. 레터링은 글자를 쓰는 작업이고 타이포그래피는 글자를 배열하는 작업이다. 개성 있게 쓴 글자를 보고 타이포그래피를 잘했다고 하지 않는다. 그냥 글자를 잘 썼다, 혹은 레터링을 잘했다고 한다.

20여 년 간 책을 디자인을 하다 보니 시간의 흐름에 따른 디자인의 변화를 느낀다. 80년대에 금적(빨간색)제목이 주류였던 시기를 넘어, 90년대로 넘어오면서 글자가 작아지면서 단아한 표지가 유행하더니 세기말이라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경제위기 때문인지 디자인이 요란해지기 시작했다. 이즈음부터라고 생각이 드는데, 타이포그래피라는 말이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했다. 그 전에도 책을 디자인하면서 타이포그래피가 있어 왔건만 요즘 들어 새삼 타이포그래피에 대하여 사람들이 부쩍 관심을 갖는 이유가 궁금하다. 서점에 나가보면 책 표지의 제목 글자들이 두드러지게 눈에 들어온다. 혹시 책을 디자인하면서 글자를 가지고 요란뻑적지근하게 재주를 부려서가 아닐까. 그래서 타이포그래피를 말하는 것인가?

타이포그래피는 글자를 배열하는 모든 디자인 방법이다. 글자가 잘 읽히게 하기 위해 타이포그래피를 한다. 그리고 글자의 개성을 강조하기 위해 타이포그래피를 한다. 앞에 언급한 타이포그래피는 보통 책

의 본문을 디자인할 때 그리고 뒤에 언급한 타이포그래피는 표지를 디자인할 때 응용된다.

80년대 정병규가 디자인한 《부초》, 서기훈의 《광상곡》이 있다. 지금 봐도 20년 전 디자인이라는 생각이 안 든다. 그 영향일까. 나는 유학에서 돌아와 타이포그래피를 한글로 번역해 글씨라고 디자인사무실 이름을 지었다. 그리고 나름대로는 타이포그래피가 돋보이는 작업을 했다. 당시에는 폰트가 다양하지 않아 대부분 손으로 직접 써서 했다. 글자를 쓰는 작업은 레터링이라 타이포그래피라고 하기에는 적당하지 않지만, 개성 있는 타이포그래피를 위해서였다.

개성을 찾는 방법 중에 고서에서 글자들을 찾아 집자를 하는 방법도 있다. 지금 폰트로 개발된 상당수의 옛날 책들에서 볼 수 있는 형태의 글자들이 당시에는 상당히 많은 디자이너들이 제목용으로 집자를 해서 사용하였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폰트로 개발된 서체들이 마음에 안 든다고 집자를 하는 디자이너들이 있다.

컴퓨터로 디자인하는 것이 일반화되기 전에 복사기로 글자를 왜곡시켜 디자인하기도 하였다. 이 방법은 일본의 유명한 출판디자이너가 아주 즐겨 사용한 방법인데 아직까지도 서점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요즘 들어 글자의 자소를 해체해서 다시 조합을 하는 방법이 눈에 띄게 보인다. 영상이 주류를 이루는 사회적인 영향 때문인지 문자를 기호로 보기보단 무늬나 형태로 보고 디자인하는 방법이다.

지금까지 몇몇 가지의 출판물에 나타난 타이포그래피의 유형을 예로 들면서 한 가지 공통적인 특징을 알 수 있다. 그것은 책 표지에 사용되는 글자들은 글자의 정형을 거부하고 비틀다는 것이다. 본문이 글자의 정형을 찾는 작업이라고 한다면 표지에 사용되는 글자는 끝없이 이어지는 상징화 작업이기 때문이다. **홍동원**